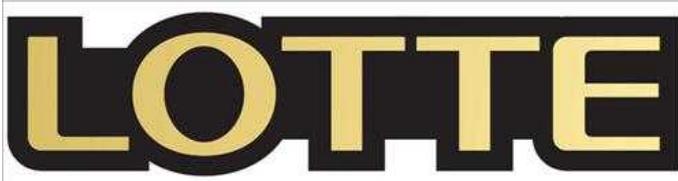


롯데그룹, 35년만에 심볼 교체

롯데그룹이 35년만에 심벌을 교체했다.

롯데그룹은 둥근 원 안에 영어 대문자 L자 3개를 겹쳐 물결치는 형상을 한 쓰리엘(3L) 마크를 심벌로 사용했으나 4월부터 롯데의 영문 표기인 LOTT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임직원들은 워드마크 형태의 LOTTE가 새겨진 배지를 달게 되며, 사기(社旗)도 교체된다.

새로운 배지는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롯데가 진출한 모든 나라에서 같이 사용한다.

롯데그룹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디아, 인

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글로벌 사업이 확대되면서 세계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징이 필요해 심벌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계열사별로 상이한 CI(Corporate Identity)도 동일한 형태로 통합한다.

신동빈 회장은 3월30일 신입사원 대표에게 새로운 배지를 달아주면서 “심벌 교체는 롯데가 글로벌 브랜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02>